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사역자 모집(전임)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고 있는 한국 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한선교에 헌신할 사역자를 구합니다.

모집인원

1) 현장 선교사 (여성 사역부분 : 0명 / 일반 사역부분 : 0명)

- ▶ 주요업무 : 선교회에서 지정하는 현장사역을 수행 (개별 협의)
- ▶ 교회 및 노회(지방회)의 인정을 받는 선교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분
- ▶ 교육부 인가의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M. div)를 받은 분
- ▶ 중국어 가능자 우대
- ▶ 여성사역부분의 경우 여성만 지원 가능하며 독신자 우대
- ▶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특히 북한선교에 헌신된 자
- ▶ 연령 : 45세 미만 (예외 가능)

2) 미디어 사역자 (0명)

- ▶ 주요업무 : 각종 라디오 및 미디어 선교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선교 콘텐츠 개발
- ▶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특히 북한선교에 헌신된 자
- ▶ 지역교회에 소속된 세례교인으로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자
- ▶ 미디어 관련 유경험자 (작가, PD 등) 및 관련 학위자 우대
- ▶ 신학 학위자 및 목회자 출신 우대

제출서류

-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
- ▶ 추천서 2부,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증명서 사본 (면접 시 지참)

기관소개

- www.opendoors.or.kr 와 www.opendoors.org 사이트 참조
- 사역 조건 - 국내근무 : 월~금, 09:00~18:00, 4대보험적용, 급여는 개별 협의
- 선교 파견자는 선교회에서 사역비를 지원하며 구체적 내용은 개별 협의함
- 모집기한 : 구인시까지
- 문 의 처 : 이제나 간사 : 010-4668-6356 / 이메일: info@opendoors.or.kr
- 서류제출 : 이메일 info@opendoors.or.kr
- 우 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 오픈도어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07056)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 TEL 02-596-3171 ■ info@opendoors.or.kr ■ Home Page www.opendoors.or.kr

■ 후원계좌(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W18년 5월 1일

북한 개발소식

05

2018May

통권 151호

| 이달의 주제 |

탈북민의 정착과 통일



한국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월간 **북한 개발 소식** 2018 May

CONTENTS

이달의 주제 :
탈북민의 정착과 통일



01 권두칼럼 탈북민의 정착과 통일	11 칼럼 1 · 최경일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현장 이야기	17 칼럼 2 · 김병철 탈북자를 생각하며
22 탈북민 수기 · 드보라 나의 출애굽기(3)	29 북한소식	
38 서평 장마당과 선군정치	40 기도제목	

6.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반도 화해 분위기와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변화가 선교 현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개선되는 것 같아 보이는 국제적 여건 속에서도 북한과 중국은 국경지역 감시와 통제, 공작 활동 등을 멈추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에 능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현장의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용기가 충만하여 도처에 도사린 위험을 잘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7. 대북 라디오 선교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밤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철책 너머 북으로 전파를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은밀하게 라디오를 청취하는 성도들과 주민들을 생각할 때 더욱 질 좋은 방송, 깨끗한 방송이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픈도어 라디오 사역 및 극동방송과 북방선교방송 등 라디오 사역 단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봉사하시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송출되는 전파가 깨끗하고 선명하게 북한의 성도들과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환경과 기상을 주관하여주시길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www.opendoors.or.kr
 * E-mail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18년 5월 1일



탈북민의 정착과 통일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남한 거주 탈북민의 숫자가 어느덧 3만명을 넘긴지도 꽤 되었다. 최근 탈북민의 신규 유입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해마다 1천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이주하고 있다. 자유를 찾아, 또 더 나은 삶을 찾아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이 모두 남한의 생활에 잘 적응하고 삶을 성공적으로 일군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녹록치 못하다. 탈북민 정착 문제는 이후 통일 시대 대비의 성격도 포함하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확실하게 다루어야 할 중요한 이슈이다.

탈북민의 남한 정착 문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탈북민이 남한 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것,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다.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탈북민 스스로가 남한에서의 생활을 할만하다라고 느낀다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고도 없고, 새롭게 배워야 할 것이 많은 탈북민이 남한 생활에 불편이 없고 만족스럽기만 하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이 극복 불가능한 것으로 다가오는지, 아니면 극복할 수 있고 노력했을 때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는 매우 큰 차이이다.

그런 의미에서 탈북민들의 남한 적응 실태는 어떠할까? 안타깝게도 많은 탈북민들이 남한 생활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하나재단이 출간한 2014년 탈북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의 20.9%가 ‘죽고싶다’는 생각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자살 생각이 6.8% 대인 것을 고려할 때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2013년 국정감사 당시 제시된 자료에서는 탈북민의 55.2%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 자살률도 남한 평균에 비해 3배가 높았다.

김희진, 정윤경 교수가 자체적으로 탈북민 4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¹에서도 지난 1년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장자의 16.3%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죽고싶다는 생각도 13.3%로 조사되었다. 더 나아가 지난 1년간 자살 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9.9%로 나타났다. 특히 부채가 많은 사람일수록,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느낄수록,

1 김희진, 정윤경.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자살생각의 관계 및 자존감의 조절효과”, 사회연구 통권 27호(2015년 1호), pp. 9~46.

여성일수록 자살생각이 많아졌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요소들이 조율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살충동에 노출되기 쉬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탈북민의 높은 자살 생각과 자살률은 탈북민의 정착 문제에 있어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환기시킨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탈북민들이 남한 생활에 적응해 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한 몇 가지 키워드를 제시한다. 즉 ‘건강한 가계경제’, ‘건강의 회복’, ‘성공적인 사회적응’ 등이다. 이 중 사회적응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고향에 대한 깊은 향수(鄉愁), 북에 남은 가족에 대한 죄책감, 언어문제(외래어, 한자 등) 등이 언급된 만큼 각 세부 사항에 대한 도움도 필요할 것이다. 탈북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에 맞는 맞춤형 케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키워드를 하나씩 살펴보면 탈북민의 성공적인 적응과 선교적인 의의를 조망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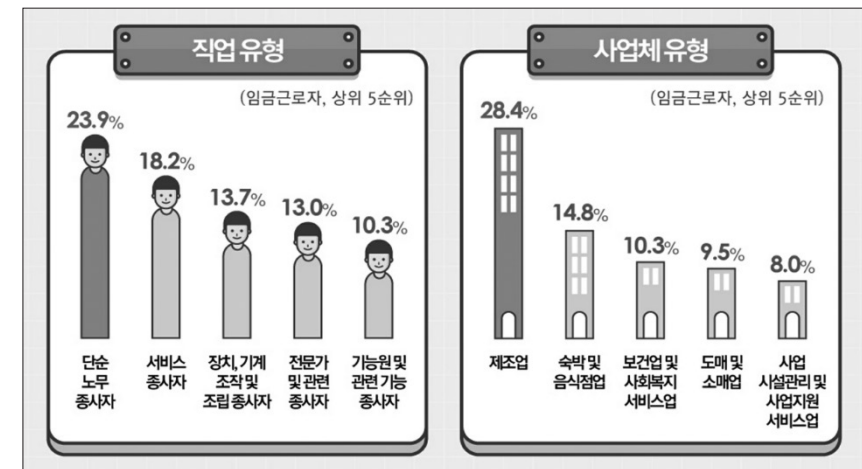
탈북민 경제문제

경제 문제는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만큼 탈북민의 정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 밖에 없다. 현재 탈북민 1인 기준 2천만원의 정착지원금이 책정이 되어 있으며 18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있다. 부부 또는 자녀 동반의 경우 금액이 늘어나지만 명당 기본금이 정해져 있어서 무조건 1인 기준액의 배수로 지원금을 받지는 못한다. 이 지원금 중 1,300만원은 주택 보증금으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700만원은 처음에 4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3개월에 걸쳐 매월 100만원씩 지급이 된다. 또한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구하기 전까지 최소 6개월간은 생계지원금이 지원된다. 전체 지원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원금만 가지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금액은 아니며, 한정없이 계속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직업을 얻고 취업을 해서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을 돕기 위한 성격의 지원이다.

문제는 남한 사회의 이치에 밝지 않은 탈북민이 겪는 어려움이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의 2010년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 1200명중 10.8%인 130명이 범죄 피해사실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사기범죄가 92건(61.8%)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 이러한 사기 피해는 탈북민을 순식간에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할 뿐 아니라 정착의 의지를 상실하게 만든다. 탈북민에게 단순한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어떻게 돈을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남한 사회의 생리가 어떠한지에 대한 교육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취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정부는 탈북민들에 대한 직업 교육과 함께 탈북민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탈북자 취업보호기간 동안 일정액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남북하나재단에서 발표한 2017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³에 따르면 탈북자들의 평균 임금은 178.7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5만원 이상 상승했으며, 경제활동 참여율도 증가하는 등 개선이 있었다. 반면 실업률은 7%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종은 제조업 (28.4%), 숙박 및 음식점 (14.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3%) 로 나타났다. 아직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탈북민들의 주요 직업 및 근로 사업체의 유형 (출처: 2017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탈북민의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이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기업의

2 이창무 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실태 분석을 통한 정착지원 거버넌스 구축방안. 서울: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3 남북하나재단. 2017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2018).

입장에 대한 연구를 하나 살펴보자. 김화순은 탈북민 고용 기업 9곳에 대한 심층 연구 및 탈북민 채용 기업 100곳을 포함한 300여 기업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탈북민 채용 동기, 애로사항,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탈북민을 고용하는 기업의 상당수가 외국인 노동자를 대체하거나 남한 출신 인력을 구하지 못해 탈북민을 채용(42%)했다고 응답했으며, 탈북민 고용지원금이 채용에 큰 동기가 된 것(48%)으로 응답했다. 기업들은 탈북민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절반 가량은 긍정적으로 응답했지만 나머지 기업은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응답했다. 주로 언급된 탈북민 노동력 활용의 장애요인으로는 문화 및 관습의 차이가 가장 컸고, 전문기술 부족, 대인관계의 갈등(다른 남한 근로자들과, 또는 같은 탈북민 근로자들끼리) 등이 꼽혔다. 근면성이나 성실성에 대한 지적은 비교적 적었다. 기업들은 탈북민의 생산성을 내국인의 90%, 외국인노동자의 95.5% 수준으로 평가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탈북민의 취업 문제에 있어서 북한에서의 방식과는 다른 한국의 노동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성 확보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탈북민을 채용하는 기업이 고려하고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 위 연구에서 탈북민의 노동력을 높게 평가한 기업들은 원칙은 엄격하게 지켜가면서 적극적으로 이들을 보살피고 온정적으로 대처했고, 그 결과 탈북민들이 조직 적응도 잘하고 생산성도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통계적으로 탈북민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기업들 중 상당수가 전체적인 이직률이 높고 항상 인력이 부족한 업체들인 경우가 많았다. 다른 기업에 비해 근무 환경이 더 열악하거나 기업 문화에 문제가 있는 곳에서 탈북민을 많이 고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탈북민들이 뛰어난 노동력을 발휘하고 잘 적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탈북민들에게 적절한 기업이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탈북민은 직업전문성 향상과 노동 시장의 이해, 사회생활에서의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도 탈북민의 특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영적 노하우를 익혀야 할 것이다. 거기에 덧붙여 탈북민을 구하는 기업들의 근로 여건에 대한 점검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검과 연결, 교육을 위한 정부의 노력 및 전문 시민 단체의 활동이 중요하다.

탈북민 건강 문제

탈북민들은 대부분 좋지 않은 건강상태를 가지고 있다. 북한에서 제대로 된 영양섭취 및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했고 탈북과정과 중국 체류기간 동안에도 각종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남북하나재단의 2017년 조사에서 과거 일을 했지만 퇴직 또는 이직을 선택한 탈북자들의 경우 29.7%가 건강문제로 인한 이직으로 조사될 만큼 건강 문제는 탈북민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지만 남한에 와서도 탈북민 중 적절하게 건강을 관리하는 인원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료원이 탈북민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⁵에 따르면 탈북민들은 대체로 높은 신체적 건강 이상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의료 접근성은 매우 낮았다. 전체 응답자 중 44%가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그 주요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가 47%에 달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탈북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와 이전의 습관이 맞물리면서 약물 오남용의 경향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한에 입국한 이후에도 북한 또는 중국에서 복용하였던 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유효 응답자 200명 중 63명(31.5%)으로 나타나 적지 않은 북한 이탈주민이 기존의 복약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인 증상 뿐만 아니라 탈북민의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하다. 많은 탈북민이 탈북 과정에서, 또 제 3국 체류간에 심각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며, 강제 복송의 피해자가 되어 수감생활을 한다거나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가까운 가족이나 동료의 상실을 경험하는 등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탈북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대구·경북 지역 81명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살펴본 장문선, 손의정의 연구⁶에 따르면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 81명 중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33명(40.7%)에 해당하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은 탈북 이후 0~2년에 증상이 나타나서 3~5년 사이에 완화되었다가 다시 6~8년에 정점을 이루는 형태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들이 탈북 이후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입국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5년 2개월 정도이다. 즉 6~8년에 스트레스 증상이 정점을 이루는 것은 이전의 비극적인 경험으로 인한 증상에 덧붙여 남한 입국 이후 부딪치는 여러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5 이소희, “탈북민 보건의료 이용 현황 및 과제”,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3월호 (2016). pp 35-49.

6 장문선, 손의정, “북한이탈주민의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심리적 문제”,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제19권 제4호 (2014), pp 973-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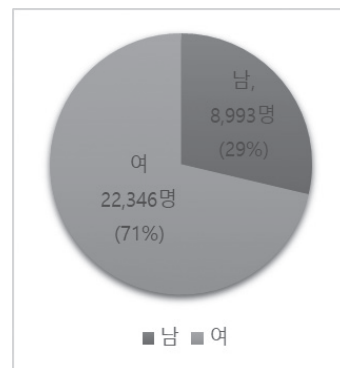
4 김화순, “남한기업의 탈북이주민 노동력 평가”,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제2호(2011). pp 109-139.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한 입국 이후 오히려 더 큰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외상 후 스트레스는 다른 심리적 증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조사 대상 탈북민들은 남한 주민과 비교했을 때 심리적 증상 중에서 강박증, 대인민감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항목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국내 입국 탈북민에 대한 정신 건강에 대한 진단과 조치가 중요한 이유다.

현재 탈북민을 위한 의료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탈북민은 1급 의료수급자로 지정되어 더 많은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또 탈북 과정에서 많은 지병을 가지게 된 경우가 많고,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쉬면서 병원을 간다는 것 자체가 녹록치 못한 경우가 많다. 경제적 문제와 좋지 않은 건강 상태가 맞물리면서 괴로움을 호소하는 탈북민의 상황에 대한 대책과 고민이 필요하다.

탈북민 여성과 청소년

탈북민이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탈북민은 아니다. 연령별로, 시기별로, 또 중국 체류 여부 등에 따라 탈북민들의 생각과 생활 양식은 천차만별이다. 특히 성별로 보면 현재까지 입국한 탈북자 3만여명중 여성이 2만명이 넘어 전체 탈북자의 약 70%를 상회하고 있다. 이 여성 탈북자 중 20-40대가 1만 3천명 가량으로 전체 여성 탈북자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도표1. 국내 입국 탈북자 인원과 성비 (통일부 통계자료, 17년 12월 기준)〉

이렇게 탈북자 중 여성 비율이 높은 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의 자살 생각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만큼 여성들을 위한 적절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 탈북하는 여성 중 대부분은

가임기 여성 (20-40대)으로서 각종 부인성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다. 국립중앙의료원의 통계에 따르면 탈북민의 주요 진료과 중 첫번째로 산부인과가 꼽혔다⁷.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탈북민 3만여명 중에 60%에 가까운 1만 7천여명 가량이 인원이 입국 당시 가임기 여성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특별한 건강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여성 탈북민들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그 안에서도 다양한 부류가 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들이 있고 북한에서 바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다. 북한에서 바로 넘어온 경우는 우리가 익히 아는 것과 같은 북한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가진 경우가 많고 가족이 북한 내에 남아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걱정과 향수를 크게 느끼기도 한다. 중국 생활을 오래 한 경우는 상황이 좀 더 복잡하다. 인신매매나 강제결혼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고, 중국에 자녀를 두고 온 경우도 많다. 가치관도 우리가 아는 북한사람의 것이라기 보다는 중국생활 속에서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사람의 이미지와는 다른 종류의 심리적, 상황적 문제들에 시달리고 있는 탈북 여성이 있다. 각 부류에 맞는 상담과 트라우마 치료, 의료 지원 및 사회 교육 등이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맞춤형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탈북 청소년의 적응 문제도 탈북민 정착을 다룰 때 빠질 수 없는 주제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전체 탈북민 중 어린이, 청소년의 숫자는 약 5천여명 가량이고 20대까지 포함할 경우 1만 4천여명에 가깝다. 전체 탈북민 숫자를 생각해 볼 때 상당한 비율이다. 청소년기나 대학기간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충분한 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탈북 청소년들 상당수가 남한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학업을 따라가지 못해 중도 포기하는 탈북 청소년이 상당수다. 국회예산정책서의 보고에 따르면 탈북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은 2008년 10.8%에서 2015년 2.2%까지 줄어 상당히 개선되고 있으나 일반학생들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고 특히 탈북 청소년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은 7.5%로서 일반청소년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1.4%)에 비해 약 5.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⁸.

탈북 청소년도 북한 출신의 청소년과 탈북자 어머니를 둔 제 3국 출신 청소년 등 두 부류로 나뉘볼 수 있다. 북한에서 온 청소년의 경우 북한에서 배운 교과 과정이 남한과 다르고 특히 남한에서 중요하게 교육하는 영어나 수학 등 과목들에 대한 기초 학습 부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 3국에서 입국한 탈북 청소년의 경우 한국말도 익숙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다가 정체성의 혼란도 더욱 심각하게 느끼는 만큼 적응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게다가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은 현행

7 이소희 (2016), pp 37-38.

8 하현선 (2016),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서 사업평가 16-12, 364호.

법률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통일부에서는 2014년부터 학비지원 등을 일부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적 근거가 취약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가 운영되기도 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정상적으로 학력을 취득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안학교의 숫자는 제한적이고, 검정고시는 준비하는 학생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정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비를 면제받지만 검정고시 및 기타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2014년 남북하나재단의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검정고시 준비 등의 이유로 인해 64.3%가 가족이 학비를 부담한다고 응답했다.

앞으로의 방향과 교회의 역할

강동완 교수는 지금까지 지금까지 실시되어 온 정부주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초기 생활기반만 마련된다면 쉽게 동질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서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⁹. 그리고 탈북민 정착 이슈를 근원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문제제기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의 갈등의 한 축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초기 정착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탈북민은 같은 민족일 지라도 전혀 다른 체제와 환경에서 이주를 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지원만으로는 성공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이루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탈북민을 위한 재정지원과 의료 혜택은 마련되어 있지만 정착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이드는 부족하다. 약간의 경제적 지원 외에는 생활전선에 곧바로 내몰리는 탈북민들에게 낯설고 경쟁적인 남한의 생활은 매우 고단하다. 하지만 미래를 고민하고 자신의 건강이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만한 여유와 여건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학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탈북민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이미 생명의 위협을 수차례 거치면서 생존 의식이 발달된 탈북민이 남한 생활에서도 실리 위주로 행동하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탈북민에게는 남한 사회를 이해하고 자기의 전문성을 기르며, 필요에 따라서 개인과 가정을 위한 상담과 의료적 지원을 통해 트라우마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할 때 탈북민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과 바른 정체성을 확립하며 진취적으로 남한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탈북민의 바른 정착을 위한 이러한 고민 속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를 떠올리게 된다. 교회는 탈북민에게 부족한 사회적 지지그룹이 되어줄 수 있고 탈북민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 적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함으로써 삶의 의미와 변화를 발견하도록 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역할일 것이다.

탈북자 사역을 해온 교회의 상당수가 처음에는 물질적 지원을 통해 탈북민을 불러모았다. 그렇지만 그동안 이러한 접근법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다. 사실 물질적인 지원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생활이 어려운 탈북민을 돕고 차비걱정 하지 않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탈북민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통한 접근은 실리에 밝은 탈북민들에게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교회를 자신의 공동체로 생각하기보다는 실리에 따라 갈아치울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게 했고,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곳이 있다면 별 어려움 없이 교회를 옮겨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런 틈을 타서 몇몇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은 상당한 지원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탈북민을 모으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단순히 탈북민들의 실리적이고 때로는 이기적인 심성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그보다 탈북민들에게 돈 이상의 의미와 사랑을 전달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더 크게 느껴야 할 것이다.



〈교회 공동체는 탈북민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교회가 탈북민에게 여러가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정말 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앓은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행 3:6) 라고 선포했다. 사도의 선포에 앓은뱅이가 치유되는 기적이

9 강동완,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정책 과제와 거버넌스 형성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7). pp1~14.

일어났고 많은 이들이 사도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는 가난한 자, 생활이 어려운 자를 힘있게 돕는 유무상통의 공동체였다. 오늘날의 교회도 사도들과 동일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탈북민 영혼을 향해 해나가야 할 것이다. 탈북민들이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영혼들을 잃어버리는 큰 잘못이다. 탈북민에게 우리의 삶과 섬김으로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한국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요 사명이라 믿는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현장 이야기

●
최경일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 센터장)

I. 새로운 삶을 만나다

10년전 까지는 보통사람들처럼 세상적인 성공을 쫓았다. 한 기업에서 인사팀장으로 일했는데 2008년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탈북대학생 인턴ships을 하게 되면서부터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게 된다. 그동안 비전교육 강사로 회사 직원들에게 ‘가슴 뛰는 일을 선택하라, 아니면 현재 하는 일을 가슴 뛰게 하라’고 수없이 이야기 했다. 그런데 어느 날 탈북대학생들을 바라보는데 내 가슴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뛰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2013년에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에 등지를 틀고 새로운 제 2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매일 북한이탈주민들을 만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을 어떻게 도울지 연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동안 기업에서 직원들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 모두가 탈북민 지원을 위해 예비된 일들처럼 여겨진다. 탈북민들을 도우면서 처음에는 일반국민과 다른 점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탈북민들에게 부족할 뿐이다. 이것을 초기에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성공적인 정착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특히 탈북민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복讖의 고향을 떠나면서 모든 인적 네트워크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돕기 위해서 날마다 실천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바로 A/S이다. 센터에서 만난 분들이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 연락해오면 정성을 다해 애프터 서비스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입사지원서 작성, 면접코칭, 장학금 서류코칭, 법률상담, 학교숙제 돕기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지금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어려서 만난 친구들이 결혼하게 되면 신부 아버지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성명학도 공부하게 되고 주변에 좋은 이름을 들으면 메모하는 습관도 생겼다. 얼마 전에는 외국에 있는 손녀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서 이름이 수출되기도 했다. 요즘

가장 많이 하는 A/S는 퇴사상담이다. 어렵게 들어간 회사인데 직장상사와의 관계로 그만두고 싶다는 전화를 자주 받는다. 속으로 ‘얼마나 힘들면 그런 생각을 할까?’ 생각하면서도 1년을 버티라고 주문한다. 월급의 절반은 욕먹는 값으로 받는다고 하면서 조금만 버티면 좋아질 거라고 조언해준다. 그만두면 더 나쁜 상황이 될 거라고 예측하기 때문이다. 지금 일하고 있는 탈북민취업지원센터는 고향집, 친정집이라는 컨셉으로 운영하고 있다. 탈북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상담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다. 실제로 취업지원으로 시작되었는데, 자녀상담, 법률지원, 신앙상담 등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다. 탈북민취업지원센터는 2007년에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동안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도 철저히 지켜온 것은 1회성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다. 계층에 따라 지원 모델을 만들어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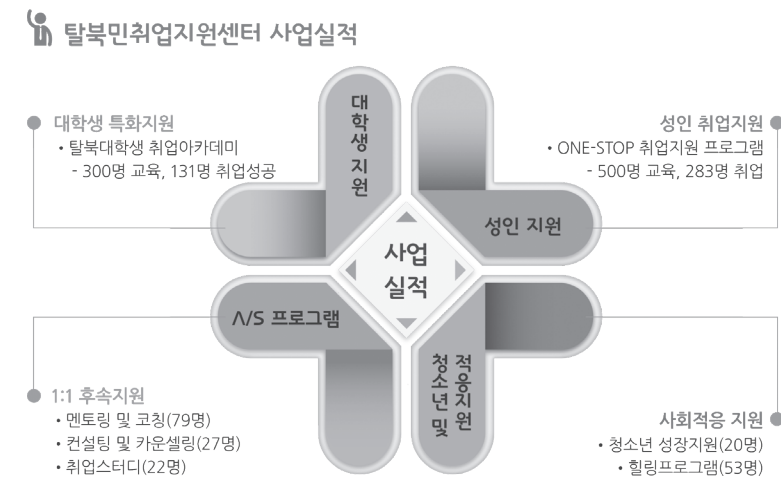
II. 탈북민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사업 10년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는 2007년에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주요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 상담 및 코칭, 교육훈련, 힐링프로그램 등이다.



【그림 1】 탈북민취업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지난 10년 동안 탈북민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000명이 넘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취업 및 정착지원 사업에 매진해왔다.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했고 이중 57%인 283명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 300명의 탈북대학생에게 대학적응 및 취업교육을 진행해 131명을 취업시킨바 있다. 그동안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다섯 가지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2】 탈북민취업지원센터 10개년 주요사업 실적

1. 성인 ONE-STOP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센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취업목표 설정, 직업능력훈련, 취업스킬 강화, 취업알선, 사후 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센터에서 진행했던 대표적인 직업교육 두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판매 및 서비스 전문가 과정

판매 및 서비스 직종은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 능력이 부족해도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영역이어서 전문교육을 개발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직업상담 : 개인/집단상담을 통하여 자기효능감 향상 및 취업목표 구체화
- ② 직업교육 : 판매 및 서비스 직무 실무이론 및 실습
- ③ 구직스킬 : 입사지원서 작성 및 면접스킬
- ④ 취업알선 : 개인의 성향과 적성에 맞는 취업처 발굴 및 알선
- ⑤ 사후관리 : 고충 상담 및 경력개발 지원

2)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2012년부터 5개년 간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고용노동부를 통해 연결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대행해왔다. ‘14년~’15년에는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최고 평가등급인 A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15년에는 전국 209개의 기존 민간위탁기관 중에서 3위에 오를 정도 우수한 실적을 나타냈다.

2. 탈북대학생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대학입학 시점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에 들어 갈 때는 진로를 점검하고 대학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구체적인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학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돕고, 졸업할 즈음에는 취업에 필요한 실전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3. 탈북 청소년 성장지원 프로그램

탈북청소년들이 꿈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꿈 로드맵을 설계하고 필요한 것을 지원한다. 먼저 꿈을 명확히 하고 도전플랜을 수립한 뒤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생활멘토를 연결해서 매달 만남을 통해 곁에서 지지하고, 작은 성공을 경험하도록 도와준다. 아울러 꿈에 관련된 직업적인 조언을 해줄 전문 멘토도 연결하는데 ‘16년부터 매년 10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대기업에 취업한 학생, 전문통번역사가 된 학생, 광고 카피라이터를 꿈꾸는 학생 등 참가자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성공을 경험하고 있다.

4. 통일스토어

본 센터가 소속된 함께하는재단에서는 양천 굿월스토어¹를 운영하고 있는데 탈북민을 고용하여 남북한 주민이 함께 일하는 통일스토어 모델이다. 현재 양천 굿월스토어에는 탈북민 4명과 남한주민 3명이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 통일스토어는 통일이후 남북한 주민이 함께 일할 때 발생할 갈등현상을 미리 경험하고 이질감을 해소하고 상생방안을 만들어가는 통일사업장이다. 향후 통일이 되었을 때 통일스토어에서 훈련된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파견해서, 고향에서 굿월스토어 점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선교의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¹ 함께하는재단은 “자선이 아닌 기회”라는 모토 아래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굿월스토어 10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가정에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 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5. 후속지원 프로그램

본 센터에서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후속적으로 지원하는 A/S프로그램이 운영된다. 4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멘토링은 곁에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하며, ◆코칭은 참가자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질문을 통해 도와준다. ◆컨설팅은 주로 취업컨설팅인데 희망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을 안내하고, 실전능력이 생기도록 지도해준다. ◆카운셀링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전문상담자를 연결하여 도와주는 사업이다.

Ⅲ.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방향 제언

그동안의 센터 운영경험을 토대로 향후 지향해야할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사역 방향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진로설계 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취업준비 현장에서 만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어디에 취업할지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나원의 교육내용 중 진로 및 직업탐색에 대한 내용이 상당시간 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개인들의 진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 한국의 직업세계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받는 교육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진로에 대한 교육은 하나원을 나온 뒤에도 재학습의 기회가 주어져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특히 취업을 본격적으로 시도하는 단계에서의 진로교육은 더욱 중요하다. 구체적인 취업목표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취업준비가 어렵고 시행착오의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진로설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진로가 결정되면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고 그것을 위해 노력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One-Stop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의 직업경력을 남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은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이는 남한에서 북한의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으며 남북한의 직업과 기술이 상이하고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업훈련은 취업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많은 탈북민들이 다양한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 직업훈련만으로는 취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탈북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업상담, 직업교육, 취업스킬, 직장체험, 직업알선, 사후관리가 통합된 One-Stop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그림 3】 북한이탈주민 One-Stop 취업지원 모델

셋째, 탈북대학생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탈북청년들은 대부분 특례 입학으로 대학에 들어가지만 기초지식이 부족하여 4년 동안 학업을 따라가기도 벅차다. 또한 아르바이트 등으로 취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대학생과의 취업경쟁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어려워 단순일자리로 생활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탈북대학생은 일반 탈북민들과 취업환경과 준비방법이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들을 도울만한 전문교육기관이 없고,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기관들이 1회성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만족스런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탈북대학생 취업지원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한 가지 사례로 앞에서 소개되었던 탈북대학생 3단계 프로그램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대학입학에서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아울러 탈북대학생에 대한 기업 인턴십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단순히 직장체험이 아니라 채용연계형 인턴을 통해 스펙은 다소 부족하지만 열정과 자세가 되어있는 탈북청년들이 기업에 입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넷째,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

한국교회는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구제사역, 복음사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취업지원에도 관심이 확장되길 바란다. 그 한 가지 실행전략으로 탈북민 취업지원을 전문적으로 돕는 민간기관들과 협력하는 방안이 있다. 교회에서 잘 양육된 탈북민들을 취업지원기관에 연결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게 하고, 역으로 민간기관에서 취업지원한 분들을 교회로 연결하여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도우면 시너지가 커질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은 인삼 농사를 짓는 것처럼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간의 지원으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식물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적절한 시기마다 제공하듯이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 진행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서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해본다. 🍵



탈북자를 생각하며

김 병 철 (BlueKorea 북방선교교회 담임목사)

들어가며

탈북자를 언론을 통해서만 듣다가 처음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를 한 것은 2001년도 서울 성북경찰서장을 할 때였다. 미지의 세계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기대와 동경 그리고 사상적으로 우리사회가 이분법적 논리에 갇혀 있을 때는 약간의 두려움마저 있었다. 더욱이 이들의 신변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혹시 북에서 온 사람이 이들을 어렵게는 하지 않을지 늘 걱정이 앞서지만 이들을 만나고 억척스럽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조금은 안심이 된다. 하지만 이한영, 김정남 사건을 보며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사람에 대한 국가테러가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불안함이 있기는 탈북자나 남한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리라 생각된다.

대부분의 남한사람들은 탈북자들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정착금으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못하다. 탈북자에게 지급하는 소형임대주택과 약간의 정착금이 이들의 남한정착에 도움이야 되겠지만 본인이 생활전선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인지라 사회주의 배급 경제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기본적인 삶이 경쟁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큰 스트레스가 되는 모양이었다.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 들어주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부녀회와 공동으로 바자회를 열기위해 북한반찬을 만들어 오라고 하면 반찬의 종류가 모두 비슷하였다. 탈북자들이 북한 전역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통제가 약하고 중국과 왕래가 쉬운 두만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먹는 것, 입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남한에 와서도 같은 지역사람들과 강한 공동체의식으로 살아간다.



〈탈북자들에게 남한의 경쟁사회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겪는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언어 소통의 문제와 경쟁사회에서의 생활이다. 북한에서는 한글전용교육을 받다보니 외래어가 많이 섞인 남한사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일상적인 생활언어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전문영역에 들어가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초·중등학교 학생들은 징검다리교육을 받지 않으면 남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탈북하여 중국체류기간이 길었거나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언어 소통이 거의 되지 않는다. 국내에 탈북자 대안학교라고는 있지만 주로 개인이 운영하다보니 교육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징검다리교육 목적보다는 지방에서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들을 맡아 키우는 보육기숙학교 성격이 강하므로 한국화교육의 목적과는 많이 동떨어져 보편성 개방성보다는 폐쇄성이 더욱 강화될 위험이 교육현장에 도사리고 있다.

탈북자의 70%정도가 여성인데 이들은 남한사회의 적응을 비교적 잘하고 있지만 남성의 경우는 남한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선교회에서 취업알선을 해 주면 장기근속하는 경우가 드물고 이직율이 높다. 사업주 측에서는 이직율이 높고 노동생산성이 조선족에 비해 낮은 탈북자들을 고용하기를 꺼리고, 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 사업장의 노동 강도를 이기지 못할까 정상적인 직장적응이 되지 않아 건설현장 막노동자로 전전하거나 최근에는 택배와 같은 비정형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이 어렵다.

중국 체류 탈북자에 대해

탈북자는 남한에 3만명 정도가 거주하지만, 북한을 이탈하여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사람이 10만~40만(추정)명 정도로 이들의 문제가 국내 탈북자보다 더 심각하다. 다양한 이유로 북한을 이탈하여 중국에 체류 중이지만 북한, 남한, 중국 어떤 정부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에서도 멀어져 있는 이들은 광야에 버려진 아이처럼 혼자의 힘으로 처절하고도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특히 남한에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남한정부가 중국, 북한 정부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주변국가의 아킬레스건인 재중 탈북자 문제를 거론하기가 쉽지 않다. 서민과 약자의 인권을 대변한다는 진보정권에서조차 정치적 이유로 이 문제가 소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통일의 문제가 우리 민족의 당위의 문제라면 탈북자의 문제는 시대의 소명이며 민족의 최우선 과제라 할 것이다. 이를 우회하여 통일을 논할 수 없고 세계인을 향하여 협조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재중탈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보면서 주변 4강과 세계는 통일에 대한 우리의 진정성을 가늠하리라 본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시리아와 쿠르드 난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난민처리방법과 각국의 이해관계로 유럽전체가 홍역을 앓는 것을 보았다. 수십만의 재중탈북자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남한정부가 2500만의 북한 인민을 끌어안으면서 통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이 우리를 신뢰하며 우리의 통일 노선을 지지 할 것인가? 재중탈북자의 남한 인도와 국내 탈북자의 남한 사회 정착을 돕는 모습이야말로 천 마디 말보다 더 효과 있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 믿는다.



〈이슬람국가(IS)를 피해 고향을 등진 시리아의 쿠르드 난민이 터키로 피난하는 모습. 최근 중동의 혼란 가운데 발생한 대량 난민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탈북자의 연착륙과 교회의 역할

탈북자가 남한에 도착하면 먼저 「하나원」에서 한국정착을 위한 기본교육을 이수한다, 그 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증과 본인의 희망지역에 따라 임대주택을 배정받고 그 지역에서 한국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대한민국국민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하지만 처음와 본 남한사회에 삶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도와 주기위해 각 지역 「하나센터」에서 재교육을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 지원을,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의 기회를 알선하고, 경찰에서는 이들의 안전을 위한 신변보호활동을 한다. 겉으로 보기에 그렇듯해 보이는 시스템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허점이 너무 많아 현실에서는 그다지 도움이 안됨을 금방 알 수 있다.

탈북자가 「하나원」 밖을 나오면 그 다음날부터 생계와 자녀교육문제에 봉착 하게 된다. 아버지는 건설현장인부로 어머니는 식당이나 병원의 영양보호사로 아이들은 학교로 가게 되는데 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남한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교육받은 젊은이도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70여년의 단절 속에 서로 다른 문화, 제도, 정치적 이념, 경제 체제속에 살아온 사람이 얼굴과 말이 비슷하다고 하여 다른 체제의 사회에 하루아침에 적응한다는게 처음부터 무리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도와주기위해 있는 것이 하나센터, 지자체, 고용센터, 경찰인데 이들 기관은 생활현장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어렵고,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서비스행태가 고객위주이기보다 공무원 중심이기 때문에 이들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탈북자에게 필요한 것은 어려울 때 상의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지근거리에 있어야 하는데 실제 도움이 필요한 그 시간, 그 장소에 공무원은 거의 퇴근하고 집에 있거나 멀리 있어 별 도움이 되지 않음을 호소한다.

교회는 탈북자의 생활주변에 항상 위치하고 있다. 목회자는 모두 고등교육과 신앙적 양심으로 사는 사회평균인에 비해 영적, 지적,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봉사와 헌신이 혼련이 되어 있고 그 길을 가는 것을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남한에는 5만 교회와 20만의 목회자가 있다. 목회자 중에는 사역지가 없는 무임목회자도 많다. 재정에 여유가 있는 교회에서는 무임목회자를 탈북자 구제와 선교의 현장에 투입하여 남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자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한다면 탈북자 남한 정착과 선교 모두에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교회는 탈북자의 가까운 곳에서 그들을 영육간에 돌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도 사회복지기관을 종교기관에 위탁관리하게 하듯이 종교기관의 유희시설을 탈북자교육시설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무임 목회자를 탈북자 어시스턴트로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인재활용에도 유익하며, 장차 다가올 통일의 시대에 대비한 인재양성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탈북자의 문제는 선교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민족적 문제로 회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며, 하나님이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유라시아를 거쳐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는다. 한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중한 사명을 가슴 벅찬 감동으로 받아들이자.

블루코리아 북방선교교회는

탈북자가 문화와 체제가 전혀 다른 남한에 살면서 부딪치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 행정, 영사 업무를 지원하는 특수사역 기관이다. 경찰 출신으로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김병철 담임목사와 법무, 세무, 노무, 행정 전문가 30여명이 법률 자문단을 구성하여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인권침해방지 및 경제 피해구제를 위해 작은 힘을 모으고 있다.

나의 출애굽기 (3)

드보라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고난이 유익이라는 고백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온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북한에서의 일들도 그 당시에는 괴롭고 끔찍한 일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픔 속에 절망한 나를 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지난 이야기에서 나누었던 것 같이 친부모와 가족들에게는 천덕꾸러기였던 나지만 남편과는 사이가 좋았고 큰 사랑을 받았다. 남편을 통해 채움 받으려고 했다. 아마 남편이 계속 함께 있었다면 나는 절대 탈북하지 않았을 것이다. 남편은 성품도 보통의 북한 사람처럼 우락부락하지 않고 속 깊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절대적으로 먹을 것이 부족했던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다.

그러던 어느 단오날이었다. 명절이라고 친척들이 셋째 시형네 모였다. 우리집은 막내였다. 사실 고난의 행군의 기근이 시작된 이후 우리 시댁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첫째 시형네는 아이가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 정신이 이상해져서 고생하다가 죽었다. 슬퍼할 새 없이 시형도 배고픔에 풀을 뜯어 죽을 쑤어먹다가 배앓이를 해서 일주일만에 못 일어나고 돌아가셨다.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 가정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첫째 시형께서 돌아가시고 2개월 후에 둘째 시형이 돌아가셨다. 농장에서 감자농사를 하셨었는데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감자 껍질 발라먹다가 결국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집안에 줄초상이 났다. 멀리 있던 우리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은 깊은 촌에 살아서 제때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장례에 가보지도 못했다. 알았다면 없는 살림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왔을텐데... 비통하고 안타깝기 그지 없었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다 보니 일단 남은 형제들이 단오날을 맞아서 모이긴 했지만 흥이 날 리가 없었다. 그렇게 우울한 분위기 속에 원채 술을 좋아하는 집안이라 그래도 없는 살림에 명절이라고

어디서 술을 구해왔다. 남은 세 형제가 술을 마셨는데 남편을 제외한 나머지 두분 시형은 술버릇이 고약했다. 넷째 시형은 술만 먹으면 동네 사람을 때고 다니는 걸로 악명이 높았고 다섯째 시형은 밖으로 돌아다니지는 않았지만 대신 아내를 때다. 고약한 술버릇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



단오(음력 5월 5일)를 단순한 절기로 보는 남한에 비해 북한에서는 단오가 추석에 버금가는 큰 민속 명절이다.

북한은 89년부터 단오를 명절로 지정하였다.

사진은 평양 시민들이 단오를 맞아 야외에서 윷놀이를 즐기는 모습(출처: 통일신문)

이번에도 오랜만에 가족끼리 술자리가 만들어진 데다가 집안에 안좋은 일이 많았던지라 금세 술잔이 비워지고 다들 얼큰하게 취하셨다. 그런데 그때 고약한 버릇대로 넷째 시형이 또 동네 거리로 박차고 나갔다. 우리 남편은 형님이 또 누구와 싸우는 건 아닌가 싶어서 급하게 따라 나셨다. 그러고 한 시간 정도 지났을까... 남편이 먼저 들어왔는데 표정이 심상치가 않았다. 계속 배가 아프다고 쩡그리더니 방에 누워서는 끙끙 앓았다. 넷째 시형은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다. 어찌 된 일인가 해서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 넷째 시형은 버릇대로 동네 사람과 싸웠고 남편은 말리려 갔다가 싸움에 휘말려서 형과 함께 싸우다가 누군가에 의해 배를 심하게 가격 당해서는 너무 아파서 집에 먼저 들어왔던 것이다. 남편의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고 나는 사태의 위급함을 깨닫고 어디 병원이라도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우리 집 근처가 아니라 명절을 맞아 시형댁에 온 터라 도통 지리를 몰라서 갈팡질팡했다. 알고 보니 그 동네에는 병원이 없고 60리 정도 떨어진 셋째 시형네가 사는 근처에나 병원이 있다고 했다.

배가 아파 거동을 할 수 없는 남편을 데리고 가려니 차가 있어야 했지만, 차는 커녕 트랙토르도 구할 수 없었다. 사정사정해서 겨우 소달구지를 구해서 남편을 뒤에 눕히고 셋째 시형네까지 60

리길을 가기 시작했다. 넷째 시형이 소를 몰아주었다.

걸어서도 2-3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소 역시 걸음이 느려 가는 길이 한세월이었다. 한참 가던 중 남편은 목이 마르다고 이야기도 하고 뒤에 달구지가 흔들리니까 신음 소리를 내며 아파했다. 남편은 아픈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마땅치 않고 물도 가지고 오질 못해서 내 속만 타들어갔다. 그나마 달구지가 산 기슭을 지날 때 산에 흐르는 물을 남편에게 조금 먹일 수 있었다. 차디찬 물을 한 모금 먹은 남편은 더 먹지 않고 됐다고 했다. 남편은 물을 먹은 후에는 아프다는 신음도 내지 않고 조용하게 있었다.



계속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새카매지더니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와 우박이 섞여서 우수수 떨어지고 남편의 얼굴에도 물방울이 맺혔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우박이 치는데도 남편은 춥다는 말이 없었다. 마음에 웬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퍼져갔다. 나는 급한대로 옷을 남편에게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불안한 마음에 더 빨리 갈 수 없냐고 넷째 시형을 다그쳤다.

한참이 걸려 드디어 병원에 도착했다. 진찰을 받기 위해 신랑을 업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의사는 남편을 한참 살펴보다니 그만 고개를 저었다.

“남편은 이미 죽었습니다.”

“아니 죽기는 왜 죽어요 금방까지 물도 먹었는데... 다시한번 잘 진찰해보시라요!”

“이미 맥이 끊어졌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에 비명소리 한번 크게 지르지 못하고 길 위에서 생을 마감했다. 나는 너무나 원통했다. 빨리 병원에라도 데려왔으면 살았을텐데 하는 원망과 후회, 안타까움이 내 마음을

휘저었다. 믿어지지 않아서 아직 죽지 않았다고, 잠깐 자는 거라고 울부짖으며 빨리 깨워달라고 의사선생님을 붙잡고 애원했다. 그렇지만 남편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의사 선생님은 죽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큰 침으로 남편의 발바닥을 찔렀다. 전혀 반응이 없었다. 의사 선생님은 남편이 죽은지 이미 1시간 가까이 지났다고 했다. 남편이 이렇게 죽다니... 너무 허망했다. 그래서 하늘이 안타까워하며 비를 뿌리고 우박을 내렸던 것인가... 내 마음은 무너져내렸다.

근처에 있는 셋째 시형네서 남편의 장례를 치뤘다. 하지만 길 위에서 객사한 사람을 집에 들이면 불길하다고 해서 삼일 장을 치를 것을 하루 만에 장사를 지냈다. 그깟 미신 때문에 동생 가는 길에도 저렇게 야속하게 한다는 생각에 너무 섭섭했다. 명절 쇠려고 넷째 형네 왔다가, 병원 가려고 셋째 형네 갔다가, 남편의 장례를 치뤘다. 얼마 전만 해도 웃으며 이야기를 했는데... 쉽게 여성을 함부로 대하는 보통 남자와와는 다르게 절대로 나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아끼고 사랑해줬던 남편인데... 어떤 위로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눈물만 흘렸다.

장례를 치르자 아이들 생각이 났다. 아이들은 넷째 시형 집에 놓고 왔다. 갈때만 해도 잠깐 병원 간다고 나왔는데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이 미어지는 듯 했다.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장례가 끝난 다음에도 나는 며칠 동안 남편 산소에서 울면서 지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혼자 두고 갔는가...’ 하며 무덤을 쥐어 뜯었다. 이 모습을 보지 못한 셋째 시형은 애를 봐서라도 가야 되지 않겠냐고 나를 일으켰다.

넷째 형님네를 와 보니 시어머니는 이미 드러누우셨다. 부모 먼저 가는 자식은 불효자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우리 시어머니만큼 실감하는 사람이 있었겠는가? 시어머니도 30대때 과부가 되어 남편 없이 자식들을 키웠기에 며느리 된 나의 아픔을 잘 아시고 걱정하고 불쌍하게 여기셨다. 그동안 내가 시댁을 잘 섬긴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이제 내가 남이 된다는 데 안타까워하셨다. 그런 시어머니께 나는 “어머니 저는 판데 안갑네다. 죽을 때까지 어머니 며느리입네다.” 라고 짐짓 씩씩한 척을 하며 마음을 안심시켜드렸다.

우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다섯째 시형 댁에 머물렀다. 다섯째 시형이 하도 술 먹고 부인을 패서 형님께서 그만 도망가버리셨다. 나를 중매해주셨던 형님이셨는데...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들을 챙기신다고 그 집에 들어가셨고, 시어머니를 따라 우리 남은 가족도 자연스럽게 그 집에 살게 되었다. 삶은 여전히 고달팠다. 그 와중에 다섯째 시형은 제 버릇 못 고치고 술만 먹으면 아내 대신 엄마를 핍박했다.

살기 힘든 시기에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했기에 다시 장사를 시작했다. 신랑도 없으니 거주지역도 옮겨야 되겠고 또 장사 거리도 얻어야겠다는 생각에 여행을 계획했다. 원래 집이 있던 마을에 가서 일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는 언니네 집에 가서 도와달라 부탁을 해서 생선이라도 한 배낭 사서 팔면 옥수수 몇 킬로 살 수 있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시어머니께 말씀 드렸다. 시어머니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못내 불안하신지 한사코 말리셨지만 가만이 있는다고 생계를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어 보였다. 말리시던 시어머니께서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할 수 없이 내가 가는 것을 허락해주셨다. 길을 가려는데 다른 때는 할머니와 잘 있던 우리 애들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내가 나가는 길에 졸졸 따라 나왔다. 그리고는 계속 “엄마 한 달이면 오지?” 하고 물어보았다. 한달 뒤에 꼭 오겠노라며 약속하고 길을 가다가 집을 돌아보는데 아이는 계속 길에 서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날 이후 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예정보다 훨씬 오랫동안 보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내 계획은 처음부터 삐그덕거렸다. 원래 마을의 신랑 회사에 가서 신랑의 사망을 알리고 퇴거 허가를 요청하니 사망 확인서를 요구했다. 그렇지만 나는 아무런 서류를 준비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틀 동안 읍소하고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국 거주지 퇴거 신청을 못했다. 일단 알겠다고 하고 언니네 집으로 일단 이동했다.



북한의 기차 (출처: 뉴포커스)

언니네를 기차로 가려니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가 한 달 넘게 걸릴 것 같아서 자동차를 얻어서 탔다. 찢러줄 담배를 사서 기다리다가 적재함 가득 짐을 볼록하게 싣고 그 위에 사람들을 태운 써비차가 오는데 담배 한 통 뇌물 찢러주고 그 위에 앉아서 갔다. 그렇게 길을 얼마나 갔을까... 외진 길에 차가 가는데 갑자기 적재해놓은 짐들이 한쪽으로 서서히 넘어가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어... 어 넘어간다” 하면서 막 뛰어내렸다. 그렇지만 나는 입으로는 어머니를 외치면서도 몸이 둔해서 미처 피하지 못하고 짐과 함께 넘어가버렸고, 뒤집힌 차 아래 깔렸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다리만 차에 깔려서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실감이 안 날 정도로 아찔한 순간이었다. 운전수가 비명을 지르는 나를 발견하고는 험레벌떡 와서 나를 겨우 빼냈다. 그 사고로 2명이나 죽었다. 운전수는 죽은 사람을 보며 무서워 벌벌 떨었다. 곧 경찰이 왔다. 지나가던 다른 차가 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은 그 운전수를 잡아가고 나머지는 버리고 갔다. 우리는 비를 맞다가 다른 차를 얻어타고 길을 이어갔다.

나는 먼저 친정엄마네를 갔다. 아버지는 남편이 죽었다는 내 말을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다가 나중에는 “젊은게 어찌 먼저 죽었느냐.... 어떻게 할꺼냐... 그래도 남은 사람은 살아야지...” 하면서 안타까워하셨다. 어머니께서도 위로해주시고 나를 집에서 쉬게 하셨다.

내가 친정에 있는 동안 아버지는 나에게 재혼을 권하셨다. 초소에서 일하는 홀아비 군인을 소개시켜 주시겠다고 했다. 나는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없다 했다. 신랑 사망한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재혼을 생각하겠느냐며 펄쩍 뛰었다. 내 마음에는 부모가 딸을 생각해주시는 것은 감사했지만 그래도 남편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시어머니랑 약속도 생각났다. 그렇게 재혼 건으로 부모님과 다투다가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왔다.

나는 이어서 언니네를 찾아갔다. 언니는 나를 마땅치 않게 생각했지만 내가 혼자되었다는 소리를 듣자 그래도 가족의 정으로 동생 살 궁리를 함께 해주었다. 언니는 나보고 애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했다. 그리고 형부 일을 도우면서 여기서 생활하자고 권했다. 그 당시 형부는 외화벌이 사업소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대에도 먹고 살 수 있었다. 나는 나중엔 안정이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겠다 생각하며 일단 형부의 일을 도우면서 지냈다.

형부네 업체는 일이 참 많았다. 비록 남들에 비해 형편은 좋아 보였지만 형부도 수익을 내고 배정된 돈을 상납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큰 부담에 시달렸다. 우리가 하는 일은 중고 물품 여러

개를 가져다 재조립해서 완제품으로 만들어 중국에 파는 일이었다. 수지가 잘 안 맞아서 중간 중간 물건 사이에 골동품도 끼워서 팔기도 했다. 그렇게 1년을 지냈다. 나름 일에 적응했다 생각하는 와중에 일이 터졌다. 우리와 거래하던 중국 대방이 갑자기 연락두절이 되어서 물건의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당장 당자금 입금일이 다가오는데 대금을 받지 못한 우리 속은 타들어갔다. 만약에 입금을 못하게 된다면 큰 봉변을 겪을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 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저 계속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다들 고민하고 발만 동동 굴리는 데 나라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부에게 가서 중국에 잠깐 가서 거래했던 대방을 찾아보겠다고 말을 했다. 형부는 “미쳤냐 여자 혼자 어딜 가냐!”하며 펄쩍 뛰었다. 처제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부인 얼굴을 어떻게 보냐고 나를 말렸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다리기만 해서는 도저히 답이 없을 것 같았다. 며칠이 더 지나고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형부도 마지못해 허락을 했다. 그렇게 나는 탈북 아닌 탈북을 했다. 평소에 국경 경비 친구들과도 친하게 지냈던 터라 큰 어려움 없이 뇌물을 찢러 주면서 잠깐 일 처리만 하고 오겠다고 하고 넘어갔다. 당면한 일만 제때 처리하고 오겠다고 넘어간 것이 그렇게 긴 여정이 될 줄을 당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계속)



1

남북 정상회담 4월 27일 개최... 종전 논의 등 관건



〈3월 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고위급 회담에 참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대표인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한국과 북한은 3월 29일 남북고위급 회담을 열고 4월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판문점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개최한 양측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문제들을 협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뒤 이어 정상회담 관련 통신·의전·경호·보도 관련 실무회담과 고위급회담도 잇따라 열렸다.

한편 미·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남북 간에 이뤄지고 있는 ‘종전논의’를 거론하며 “축복한다”(Have my blessing)고 말했다. 4·27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6·25 종전선언에 대한 남북 간 비공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공식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공개적 지지·승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는 잇달아 열리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끌어낸 다음 구체적인 비핵화 프로세스에 착수하는 동시에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하는 평화체제 구축 논의까지 ‘통 큰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4월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은 5-6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향한 출발선이자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2

김정일 방중 공식 확인... 시진핑과 정상회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 3월 25일부터 28일의 일정으로 이루어진 이번 방중에는 부인 리설주가 동행했으며, 최룡해·박광호·리수용·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조용원·김성남·김병호 당 부부장 등이 수행했다고 알려졌다. 이번 중국 방문 이전까지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6년여 동안 외국을 방문한 적도, 정상회담에 나선 적도 없었다.

김 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에 나선 것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다룰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향후 협상국면에서 중국 측에 협력을 구할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 입장에서 남·북·미 3개국 외교전에서 '구경꾼'으로 밀려났다는 '차이나 패싱'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자국의 역할을 확대할 목적으로 김 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 기간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진행했다. 신화통신에 보도된 중국 측 회담 내용 발표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만약 한국과 미국이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부응해 평화롭고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 실현을 위해 단계적이고 보조를 맞춘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외연 확대 면에서는 긍정적인 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전선이 이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중국은 4월 13일 김일성의 106회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200명 규모의 예술단을 평양으로 파견했다. 북한은 예술단을 이끌고 방북한 송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예하 예술단을 공항에서부터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14일에는 송타오와 김정은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송타오가 작년 11월 시진핑 특사 자격으로 방북했을 때 김정은을 만나지도 못했던 것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3

폼페이오, 4월 초 극비 방북해 김정은과 만나... '비핵화' 조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12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부활절 주말(3월31일~4월1일) 극비리에 방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4월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미국 고위관리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지명자는 북한과 미·북 정상회담의 시기·장소·의제에 대해 개괄적인 합의를 이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정상회담 시기·장소를 6월 초, 미국을 제외한 5곳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폼페이오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 특사 자격이었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한편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4월 12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자신이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추구한다는 세간의 우려를 부인하고 외교적 해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회담을 통해 당장의 포괄적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면서도 북한과 미국 정부가 비핵화를 위한 조건을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장과의 사전 논의에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지만 폼페이오 지명자는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비핵화 성과를 확실히 얻어내기 위해 제재 완화 등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통령과 행정부의 의도라고 설명하기도 하는 등 기존의 핵문제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4

평양에서 남측 예술단 공연 13년만에 열려... 감동의 무대



〈4월 3일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남북합동공연 '남북예술인의 연합무대-우리는 하나' 공연에서 남북 출연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이 13년만에 열렸다. 4월 1일 동평양대극장에서 남측 단독공연을 시작으로 3일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남북 합동공연으로 이어진 이번 행사에는 조용필을 비롯해 이선희, 최진희, 윤도현, 백지영, 레드벨벳, 정인, 서현, 알리, 강산에, 김광민 등 총 11명(팀)이 올랐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와 함께 우리 예술단의 1일 평양공연에 참석했다.

우리 예술단의 평양공연은 2005년 조용필 콘서트 이후 13년 만이며, 이번처럼 남북이 합동공연을 펼친 것은 2003년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 기념 통일음악회 이후 15년 만이다. 류경정주영체육관은 현대그룹과 북측이 협력해 2003년 준공한 총 1만2천석 규모의 종합체육관이다.

5

김정은 방중 후 북 노동자 중국 파견 재개 움직임 보여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도문시 경제 개발구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방문 후 중국 내 북한 노동자의 철수움직임이 멈추고 비록 소규모이지만 북한 노동자의 중국파견이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조중국경지역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서 중국에 신규 파견되는 북한노동자들이 자주 목격된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4월 초 400여 명의 조선 여성 근로자들이 연변 자치주 허룽(화룡:和龍)시에 새롭게 파견되었으며 단둥에서도 조선 노동자로 보이는 젊은 여성들을 태운 버스 여러 대가 신의주에서 압록강 철교를 넘어 단둥해관에 들어와 노동자들을 내려놓는 광경을 3월 30일 경에 목격했다고 전했다. 한편 연말 총화를 위해 북한에 입국한 무역 주재원들 중 일부는 중국에 신규로 파견할 노동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파견 노동자들을 모집해 준비를 마쳤으니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사업체를 알선해 달라는 전화를 평양의 무역일꾼들로부터 여러 번 받았다”면서 “이런 전화는 김정은 방중 전부터 받았지만 요즘 들어서 그 요청의 강도가 전보다 더 거세졌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기존에 파견된 북한인 노동자의 노동허가증을 갱신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후 지난해 12월 채택된 결의 2397호는 북한 노동자를 2019년 말까지 모두 귀국시키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강화한 바 있다.

(참고: RFA, 4월 3일)

6

북, 러시아 파견 근로자들에 한국문화 접촉금지 경고



〈러시아 극동지역에 있는 한 벌목장에서 북한 벌목공들이 나무를 자르고 있다. (사진: RFA)〉

최근 북한이 해외파견 근로자들에게 반사회주의 행위를 경고하는 포고문을 내렸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러시아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당국에서 러시아에 파견된 근로자들에게 반사회주의를 척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을 전달했으며 “이 같은 포고문은 나훗뜨까, 우스리스크, 하바롭스크, 아르ჟ름 등 러시아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시에 포치되었다”고 언급했다.

소식통은 평양당국이 해외파견 근로자들에게 포고문을 내린 것은 처음 보았다면서 포고문에서 기존의 ‘비사회주의’ 대신 ‘반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라며 “사회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사회주의의 보다는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행위, 즉 반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해 반사회주의 행위의 엄중성을 경고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이와 관련 러시아의 또 다른 소식통은 같은 날 “최근 조선당국이 우스리스크에 파견한 근로자들에게 포고문을 내렸다”면서 “포고문의 내용은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예술관련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반사회주의행위로 엄하게 처벌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근로자들의 손전화 검열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참고: RFA, 4월 10일)

7

15회 북한자유주간 4월 28일 서울서 개막…대북정보유입 초점



〈지난해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4회 북한자유주간 행사 참가자들이 중국의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가졌다 (사진:VOA)〉

연례 대북 인권행사인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진실이 그들을 자유케 하리라’로 정하고, 북한에 정보를 들여 보내기 위한 탈북자들의 노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것이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의 설명이다.

솔티 대표는 탈북자들이 지난 해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자유주간 행사 때 발표와 논의 중에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었으며, 올해 행사 중에 대북 풍선 보내기와 쌀과 이동식저장장치(USB)가 들어 있는 페트병 보내기 등을 통해 북한에 정보를 보내기 위한 탈북자들의 활동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이 재산과 목숨 등 모든 것을 걸고 하는 이 같은 활동을 세계가 이해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올해 행사에서는 탈북 난민들을 구출하고 이들의 자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탈북자들의 활동에도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이 밖에 중국의 탈북자 강제복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중국 대사관 앞 시위 등도 계획돼 있다.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자유주간 행사는 지난 2004년 시작됐다.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다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서울에서 열렸고, 2015년부터는 다시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다.

(참고: VOA, 4월 7일)

8 북한 2월 중국산 곡물수입 전년 대비 9배 이상 증가... 대부분이 밀가루



북한이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밀가루 수입이 대부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최근 경제상황을 알 수 있는 간접적인 지표로 주목된다.

북한은 올해 2월 중국으로부터 총 1만2천22t의 곡물을 수입했다. 한국의 북한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연구원장이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1천275t의 곡물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9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북한이 수입한 곡물은 밀가루가 대부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72t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17배 이상 증가했다. 밀가루를 제외한 옥수수과 쌀, 전분, 두류 등 다른 곡물 수입은 전혀 없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권 원장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쌀을 전혀 수입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제재의 영향으로 주민들의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주민들의 소득 수준 감소로 쌀 소비가 줄었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 생산된 쌀로서 내부 수요가 충당되었고, 쌀을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는 이들은 값이 비교적 싼 밀가루를 선호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지타운대학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도 제재로 인한 수출 감소로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제재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과 쌀을 전혀 수입하지 않은 것이 무관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권 원장은 특히 지난해 5월 이후 밀가루 수입 규모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뭄의 영향으로 이모작 작물 수확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평가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6월 이모작 작물인 밀과 보리 6만t 과 감자 25만t 등 총 31만t의 이모작 작물을 수확했다. 44만7천t을 수확했던 2016년에 비해 31% 감소한 규모이다.

이러한 원인 외에 수출 활동 저하로 시장의 활력이 줄어들면서 여기에 의지하던 장사하던 주민들이 음식 장사로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주재료인 밀가루 수요가 증가했을 가능성이나, 그 중에 여유가 있는 주민들이 빵이나 피자 등을 선호해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의 수요가 증가했을 가능성도 부분적으로 밀가루 수입 증가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참고: VOA, 3월 29일)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장마당과 선군정치
저자: 헤이즐 스미스
출판사: 창비
출판일: 2017. 09. 20
가격: 25,000원

1990년대 중반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대기근과 아사사태를 맞이했다. 국경이 무너지고 수백만의 탈북자가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며 당시 많은 사람들은 북한의 붕괴가 시간문제라고 보았다. 그러나 북한은 전대 미문의 위기 상황에서도 붕괴하지 않았고 체제를 유지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생존 그 자체가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을 북한과 북한 정권은 그러나 이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생존을 위한 노력과 의도하지 않은 내부의 변화를 통해 북한은 살아남았다. 북한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변화는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났는가? 북한 정권 자신의 정치적 궤도를 거의 변화시키지 않았음에도, 북한 경제와 사회가 탈냉전 시기에 어떻게 그리고 왜 변모했는가? 그것이 오늘 소개할 책, '장마당과 선군정치 (원제: North Korea: Markets and Military Rule)'에서 주목하는 점이다.

이 책에서 중요하게 부각시키는 2가지 요소가 있다. 먼저 이러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기존에 북한에 대해 넓게 퍼져있는 고정관념의 타파를 이야기한다. 저자가 지적하는 고정관념은 단순히 북한을 범죄 국가, 이해할 수 없는 국가, 비정상적 국가라고 보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때가 자주 있다. 그렇지만 이해할 수 없는 정책과 현상이 발생한다고 해서 북한을 이해 불가능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북한과 북한에 의한 핵문제 등을 다루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없다. 저자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정상상의 이미지 뒤에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나름의 논리와 이해관계 속에 변모해가고 있는 보통의 국가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즉 분명하게 왜 그런 행동과 정책을 시행했는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국가라는 것이다.

두번째로 이 책은 북한 이해의 핵심으로 군사적 통치(Military Rule)와 시장(Markets)을 제시한다. 이 책이 보는 북한의 정치적 특징은 바로 '군사국가'라는 것이다. 한국 전쟁이 북한의

군사국가화의 기틀이 되었다. 민족의 비극적인 전쟁 이후 김일성은 한반도를 전쟁터로 규정하고 북한을 전쟁에 대비된 전시 통제 국가, 병영화된 사회로 조직했다. 경제와 정치적 정책과 의사결정은 ‘전시적 상황’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군수품 생산을 위한 중공업 중심의 경제, 이탈자를 용납하지 않는 철저한 정신 교육, 외부로부터의 지원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주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자립과 자급자족 등은 북한이 병영국가임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군사적 통치 체제가 단순히 외세를 막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순수한 목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당연히 아니다. 김일성은 이 체제를 통해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하였고 그 뒤를 이은 김정일도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적 붕괴 상황에서 ‘선군정치’를 내세우면서 군대를 의지하고 기존의 군사적 통치 원리를 강화함으로써 민중 봉기나 주민 동요를 억제하고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했다. 북한의 통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자신의 정권 안보였다.

‘1990년대 북한 정권은 지속적으로 외국의 침략을 방지하고 저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정권 안보 목표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책 234쪽)

그렇지만 대기근과 경제 붕괴, 고난의 행군은 이러한 구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국민들이 매죽음을 당하는 와중에도 북한 정권은 정권 안보에 우선순위를 둔 나머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믿음은 근본부터 흔들렸다. 국민들은 이제 당과 국가가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 생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의 선택은 앞서 말한 대로 ‘선군정치’였다. 군대를 정권의 생존과 같이 가도록 정치구조를 재편하고 모든 의사결정을 군사적 관점에서 진행해 감으로써 군사적 통치를 강화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경제적인 밑바탕이 붕괴한 상황에서 주변 국가와의 군비경쟁도 불가능하게 된 북한 정권이 비용적으로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핵개발에 나서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정치적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정권 생존을 달성했는지 모르지만 사회 전반에 걸친 시장화의 물결은 막을 수 없었다. 북한 주민의 생활, 더 나아가 국가의 기본적인 시스템 전반에 시장화의 바람이 급하게 몰아쳤다. 앞서 말한 것처럼 북한 지도부는 기존의 병영 국가적 시스템을 군대와 함께 극한으로 활용했다. 북한이 붕괴하지 않은 것은 북한 정권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도 자신의 정권을 지키고자 했던 북한 정권의 절박한 노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 경제를 통해 국가의 도움 없이 어떻게든 생존을 도모했던 주민들의 자구책이 효과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자신이 100% 통제하지 못하는 시장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그 시장 덕분에 유지되는 국가 시스템 사이에서 한동안 갈등했던 것이다. 그리고 화폐개혁 등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시장 없이

국가를 유지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저자가 강조하는 부분은 북한 주민의 변화이다. 한민족이라는 민족주의적 자긍심을 가진 북한 주민들은 한국 전쟁의 아픔과 이후의 재건 과정을 통해 어떤 모양이든 김일성으로 대표되는 북한 정권에 힘을 실어주었다. 저자는 지속된 사상교육 및 개인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제재를 통해 주민들의 행동이 강제된 부분도 있지만, 분명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주민들이 정권의 논리에 동의하고 어쨌든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인식 하에 움직였다고 보았다. 이러한 심적 동의가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데 큰 밑바탕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소위 시장화와 선군정치 시대로 들어선 이후 일반 주민들은 지금의 자신들의 정권에 더 이상 전과 같은 동질감과 심정적 일치감을 가지지 않는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다만 이전에 쌓아왔던 민족적 정체성과 전후 김일성 시대의 리더십에 대한 인정 정도만 주민들 사이에 유지되는 정도이다.

결국 책의 결론은 북한 변화의 주체인 북한 주민들에 주목하자는 것이다. 비록 북한은 계속 군사적, 병영적 시스템을 유지하겠지만 전처럼 주민들의 생활 전반을 주관하지는 못한다. 전쟁을 위해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은 무너졌고 시장이 주민의 일상생활은 물론이요 국가 기업이나 심지어 군대에 이르기까지 깊숙하게 파고들었다. 북한의 변화가 시작된다면 바로 이들이 변화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책의 분석이다.

해이즐 스미스의 저서 ‘장마당과 선군정치’는 외국인의 눈으로 북한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우리는 이미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이야기하는 북한 주민들이 공유하는 끈끈한 민족적 정체성에 대하여 지면을 할애하여 분석하는 모습은 신선한 느낌도 주었다. 특히 평양에 일정기간 체류한 경험과 엄청난 양의 참고 자료를 통해 저자가 관련 주제 연구를 위해 얼마나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고 공을 드렸는지 느껴졌다. 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싶은 독자들에게 상당히 유익한 연구 서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북한 기도 제목

1. 한반도의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북미 정상회담도 곧 있을 예정인 가운데 5월은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단시일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각 대화와 회담을 주관하셔서 북핵문제 해결과 더 나아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놀라운 성과를 도출하기를 기대합니다. 각 국의 리더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화에 참여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이번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의 진정한 해결에 한발자국 더 다가가고 더 나아가 통일의 그날을 앞당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사회 통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굶주림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온 우리의 동포들이 이미 3만명이 넘습니다. 그간 정부차원에서 적응 훈련과 경제적 지원 등이 제공되어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너무나 다른 환경과 체제 속에서 70년 넘도록 분리되어 살아오며 커져버린 이질감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심리적 불안감, 영적인 공허함과 건강 악화로 인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탈북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줍시다.
3. 한국교회의 회복과 통일 준비를 위해 기도합니다. 탈북민들을 통해 우리는 다가오는 통일에 대비하여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실질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통일을 둘러싼 추상적인 거대 담론에는 흥미를 가지면서도 정작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나되는 통일을 이루어가는 것에는 매우 미숙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약함을 거울삼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라, 섬기라고 보내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한반도를 변화시키는 영적 원동력임을 믿습니다. 북녘의 형제, 자매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이 성장하며 고단한 생활속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디오 복음 방송을 비롯해서 성경과 복음 서적 등 신앙 자료들이 계속해서 지원되고 또 생존을 위한 생활 지원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북한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때에 북한 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안전과 생활과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5. 중국 내 북한 난민을 위해 기도합니다.金正은의 방중 이후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 체포와 복송이 더욱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증언이 있습니다. 양국의 정치적 관계에 따라 휘둘리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탈북자들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고 고통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탈북자들과 그 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을 돕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조선족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중국 당국이 하루 속히 탈북자에 대한 정책을 바꾸어 강제 복송을 중단하도록 기도합니다.